

석유화학, 취업경쟁률 87대1 수준

인크루트, 465사 2006년 경쟁률 평균 56.2대1 ... 외국계 · 공기업 선호

2006년 신입사원 채용을 진행한 기업의 취업 경쟁률이 평균 56.2대 1을 기록한 것으로 조사됐다.

인사취업 전문기업 인크루트는 2005년과 2006년 신입사원을 채용한 주요 기업 465사를 대상으로 취업현황을 조사한 결과, 평균 취업경쟁률이 56.2대 1로 2005년 평균 48.6대 1보다 15.6% 가량 높아졌다고 12월11일 발표했다.

조사 대상기업의 취업경쟁률 분포는 10대 1이상-50대 1미만이 34.0%(158사)로 가장 많았으나 100대 1을 넘는 곳도 24.5%인 114사에 달했으며 반면 10대1 미만인 곳은 21.5%(100사)로 나타났다.

특히, 취업 선호도가 높은 외국계 기업과 공기업에 지원자들이 몰려 외국계 기업의 평균 경쟁률이 99대 1, 공기업은 75.7대 1이었으며 대기업 53.3대 1, 중견 중소기업 52.3대 1의 순으로 뒤를 이었다.

업종별로는 유통·무역업이 131.9대 1로 가장 경쟁이 치열했고 식음료 127.9대 1, 석유화학 86.9대 1, 금융업 72.5대 1, 기계·철강 및 조선·중공업 67.7대 1, 건설업 66.2대 1 순으로 경쟁률이 높았다.

반면, 전기·전자(33대 1), 정보통신(39.4대 1), 제약(40.2대 1), 자동차(43대 1) 업종은 비교적 경쟁률이 낮은 것으로 집계됐다. <저작권자 연합뉴스 - 무단전재 · 재배포 금지>

<화학저널 2006/12/11>